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12월 15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선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1년 12월 15일(목)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최금숙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61)가 지난 12월 12일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신임회장은 “가족의 유대 강화에 가족법 연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전임 회장인 이경희 교수(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젊은 가족법 연구자들로 강화된 젊은 가족법학회로 만들려고 애썼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회장에는 신영호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